

#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22-3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2018.6.27.)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총 9점 (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 1점, 금제 사리내호 1점, 청동합 6점)	국 유 (국립익산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6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손소 적개공신교서 (孫昭 敵愾功臣教書)	1축	손** (한국학중앙연구원)
2	사시찬요 (四時纂要)	1책	김** (예천박물관)
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1첩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박물관)
4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14책	서울특별시 (종로도서관)
5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1축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6	이봉창 의사 선서문 (李奉昌 義士 宣誓文)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보물 (2018.6.27.)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총 9점 (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 1점, 금제 사리내호 1점, 청동합 6점)	국 유 (국립익산박물관)	국보 지정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라.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국가등록문화재 (2019.4.8.)	이봉창 의사 선서문 (李奉昌 義士 宣誓文)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예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 재 해제 예고

마.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예고】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 현 지정현황 : 보물(2018. 6. 27. 지정)
- 지정명칭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익산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국립익산박물관
- 수량 : 총 9점(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 1점, 금제 사리내호 1점, 청동합 6점)
- 규격 : 금제 사리봉영기 10.3×15.3cm, 금동사리외호 높이13.0×너비7.7cm, 금제 사리내호 5.9×2.6cm  
 청동합① 높이5.9×너비3.4cm, 청동합② 높이7.3×너비4cm  
 청동합③ 높이6.6×너비3.2cm, 청동합④ 높이8.3×너비4.6cm  
 청동합⑤ 높이7.1×너비3.8cm. 청동합⑥ 높이5.9×너비3.4cm
- 재질 : 금, 금동
- 조성연대 : 639년(무왕 40) 경
- 사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의 사리공(舍利孔)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639년(무왕 40) 절대연대가 기록된 금제 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와 함께 금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壺), 금제 사리내호(金製舍利內壺)를 비롯해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 6점이다.

‘금제 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음각되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즉 백제의 왕과 왕비의 장수와 왕조의 영원무궁을 빈 것으로 미륵사는 왕사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봉영기는 그동안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롭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서체 역시 곡선미와 우아함이 살아있는 초당풍(初唐風) 양식을 간직하고 있어 백제서예의 수준과 한국서예사 연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볼륨감과 문양의 다양성과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합 중 하나에 새겨진 백제 2품 ‘달솔 목근(達率目近)’이라는 명문을 통해 시주자의 신분이 최상층이고 그들이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서 희귀성이 높다. 청동합은 녹로(轆轤)로 성형한 동제 그릇으로서 그 일부는 우리나라 유기(鑄器) 제작 역사의 기원을 밝혀 줄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사료이자 기준이 된다. 제작 기술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재료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역량을 응집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으므로 한국공예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유물로서 위상이 높다.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한편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국보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 【보물 지정예고】

###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호(1972.12.29. 지정)
- 명 칭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 소유자(관리자) : 손\*\*(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축
- 규 격 : 30.6×167.0cm
- 재 질 : 저마(苧麻) 및 목재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1467년(세조 13)
- 사 유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에 세거해 온 경주손씨의 손소(孫昭, 1433~1484)가 하사받은 적개공신교서 1점이다. 적개공신은 1467년(세조 13)에 세조가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에게 내린 교서로 총 45명을 녹훈하였으며, 1등은 이준(李浚) 등 10명, 2등은 김국광(金國光) 등 23명, 3등은 이부(李溥) 등 12명이다. 이 중 2등공신 장말손, 3등공신 정종의 교서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손소는 1467년 5월 이시애의 난 때 평노장군(平虜將軍) 박중선(朴仲善)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평정에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훈(策勳)되고 내섬시정(內贍寺正)으로 특진되었다.

해당 교서에는 수급자명, 공적내용, 특전과 포상, 등위별 공신명단 그리고 발급일자가 기록되었고 마지막 발급일자 위에 「시명(施命)」이라는 어보를 찍었다.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16세기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에 수록된 교서의 재질과 장황형식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장(改粧)이나 후대의 보수 없이 550년 넘게 원래의 장황(粧潢)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고 하겠다.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조선 전기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시애의 난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조치, 공신으로 책훈된 인물, 공신에 대한 각종 은전 및 특전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조선시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신교서 문서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현전하는 적개공신교서나 관련문서들과 비교할 때에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사시찬요(四時纂要)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사시찬요(四時纂要)
- 소유자(관리자) : 김\*\*(예천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북골길 150, 예천박물관
- 수 량 : 1책
- 규 격 : 26.8×15.9cm(반곽 19.7×12.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전기
- 사 유

『사시찬요(四時纂要)』는 중국 당나라 말기인 996년에 한약(韓鄂)이 편찬한 농업 서적으로,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을 12달로 나누고 월별의 농법과 금기 사항, 가축 사육법 등을 수록해 놓은 책이다. 농업과 생활, 농수산물 가공, 가축의 질병, 의약 위생, 상업 경영, 농기구의 수리와 보관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사시찬요』는 조선 초기 농정(農政)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 세종 때 『농사직설(農事直設)』이 편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농업경영에 참고한 대표적인 관련 서적으로 활용되었다.

지정예고 대상 ‘사시찬요’는 조선 전기까지 사용한 고려 서적원(書籍院) 제작 활자를 바탕으로 조선 초에 사용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 중자(中字)를 함께 사용하여 인쇄한 책이다. ‘사시찬요’ 중 지금까지 한·중·일 삼국에서 공개된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서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여러 번 논증된 바 있다. 간행 시기는 계미 중자의 사용례로 보아, 1403년부터 1420년 사이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금속활자를 사용해 ‘사시찬요’를 인쇄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농업 활동의 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극복이라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책은 민생을 위한 농업의 증진,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사실 뿐 아니라 간행 당시의 사회경제사의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사시찬요’는 역사적·학술적·서지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첩(1권)
- 규 격 : 전체 32.2×1,269.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조성연대 : 고려 12세기
- 사 유

동아대학교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8’은 북송의 승려 정원(淨源, 1011~1088)이 당의 승려 정관(澄觀, 738~839)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석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120권 중 권8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묘법연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중심사상이다. 크고 방정하고 넓은 이치를 깨달은 꽃같이 장엄한 경전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명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전이다.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귀국할 때에 북송의 정원대사(淨源大師)가 1질을 선물로 주었고, 이에 의천이 항주(杭州)의 각수인 엄명(嚴明) 등에게 판각을 부탁하였다. 그 후 1087년(고려 선종 4) 3월에 송나라 상인 서전(徐戩)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고려에 옴으로써 전래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 송판(宋板)을 가지고 주로 인출하였으나, 조선시대인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례 대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했으므로, 국내 인본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지정예고 대상 동아대학교 소장본의 권말에는 ‘정화병신 오월 경조(政和丙臣[申](1116)五月敬造)’라는 조성기가 있어, 해당 원판이 고려 예종년간(1105~1122)에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본의 표지는 상수리나무로 만든 종이인 상지(橡紙)이며 표제는 금니(金泥)로 정갈하게 필사하였다. 판본 및 인쇄상태로 보아 고려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권88은 국내에 전래된 동일한 판본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가운데 유일하게 알려진 권차이다.

송에서 판각해 고려에 보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각국사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세종교장의 집성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 수입경판을 일본에 하사함으로써, 조선·중국·일본 삼국의 불교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 □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 소유자(관리자) : 서울특별시(종로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15-14, 종로도서관
- 수 량 : 14책(22권)
- 규 격 : 27.2×16.7cm(반곽 19.0×13.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중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
- 사 유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22권 14책은 명나라에서 1430년(명 선덕 5) 중간된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복각(復刻)된 목판을 1472년(성종 3년)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발원으로 찍은 인출본 총 30건 가운데 한 건이다. 후대에 개장·수리되었고 분책되기도 했지만 전권이 남아 있는 완질본이다.

『불조역대통재』는 원나라 승려 염상(念常, 1282~?)이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 고승들의 전기(傳記)나 일화들을 편년체로 편찬한 불교사서(佛敎史書)로, ‘불조통재’ 또는 ‘통재’로 축약해 부르기도 한다.

종로도서관은 1920년 개관했으며 한국인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이곳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제1책 권두에 원나라 지정(至正) 원년(1341) 6월 11일에 우집이 쓴 “불조역대통재서(佛祖歷代通載序)”와 이보다 3년 뒤인 1344년 3월에 각안(覺岸)이 쓴 “화정매옥상선사본전통재서(華亭梅屋常禪師本傳通載序)” 등 2편의 서문과 범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1343년 10월에 쓴 본무(本無)의 후서, 정인(正印)과 수충(守忠)의 글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면에는 1472년(성종 3년) 6월 초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쇄하여 붙여 놓은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의 발문이 있어 이 책이 원나라에서 전래된 본을 바탕으로 15세기에 조선에서 복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수온의 발문은 인수대비가 세조, 예종, 의경왕의 명복과 정희왕후, 성종, 공혜왕후 등 왕실인사들의 장수를 빌기 위해 발원해 이 책을 간행한다는 내용이다.

지정예고 대상은 전체 권차가 남아 있는 완질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2건만 확인되는 등 자료적인 완전성과 함께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동일한 판본의 다른 한 건은 1982년 11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472년 음력 6월 지어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 발문의 인출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인출불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하고 해당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조선 초기의 왕실 불교신앙과 경전의 인쇄경향, 국내 소장 목판상황, 22권 14책 완질로 전한다는 희귀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원나라 때 찬술된 불교사서(史書)로 당시의 불교 연구 사료가 희박한 현 시점에서 불교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참고서라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에서 100여년 가까이 보존해 온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축(1권)
- 규 격 : 28.5×1,050cm(匡高 : 22.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권자장(卷子裝)
- 조성연대 : 고려 11세기 경
- 사 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중국 당나라 때 현장(玄奘)이 한역한 것으로 모두 10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륵보살이 4개월 동안 매일 설법한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은 유가(瑜伽)를 행하는 사람의 수행 단계와 유식학(唯識學)과 관련된 용어를 풀이하였으며,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룬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전 100권 중에 권66에 해당하는 권차로, 초조대장경 ‘속(積)’함에 포함된 66권으로서 유일본이며, 다른 초조대장경에서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중 권15, 권17, 권32, 권53 등 총 4권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후대 판각된 재조본(再雕本) 『유가사지론』의 4건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 예고대상 권66은 앞부분이 결락되어 보존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이 흠결이지만 유일하게 전하는 권차라는 점에서 희소한 가치가 있다.

그밖에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토를 단 석독구결이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구결을 통해 고려시대 유식학에 대한 연구 수준을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교철학 분야의 의의가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국어학, 문자학, 불교학, 서지학 등 우리 민족의 언어, 종교, 문헌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 □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2019.4.8. 등록)
- 명 칭 :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 소유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32.3×20.1cm
- 재 질 : 직물에 먹



○ 판 종 : 필사

○ 조성연대 : 1931년 12월 13일

○ 사 유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은 193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봉창 의사(1900~1932)가 일본에 대한 의거를 다짐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김구(金九)가 결성한 항일독립운동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제출된 것이다. 1931년 12월 13일 서명을 마친 이봉창 의사는 같은 날 안중근 의사의 막내동생이자 한인애국단 임원이었던 안공근(安恭根)의 집에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선서문을 가슴에 단 채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때 찍은 흑백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이봉창 의사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32년 1월 8일 도쿄의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의거를 결행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일명 ‘동경의거’). 그 결과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해 10월 비공개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에 큰 영향을 끼쳐 일제가 중국의 항일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하고자 1932년에 일으킨 제1차 ‘상해사변’을 촉발시켰고, 이어서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가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주도로 결성된 항일무력단체로, 한·중 우의와 일본수뇌 암살 목적으로 1931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봉창 의사는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이 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보물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 선서문’(1932년) 역시 한인애국단 입단서이자 문구 형식 등이 이봉창 의사 선언문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1931년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하면서 선언한 당시 작성된 것으로, 동경의거(東京義擧)와 한인애국단의 활동, 항일투쟁의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듬해 홍커우공원에서 의거를 단행한 윤봉길 의사가 작성한 선서문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평가되므로, 그 역사적 상징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금제 사리봉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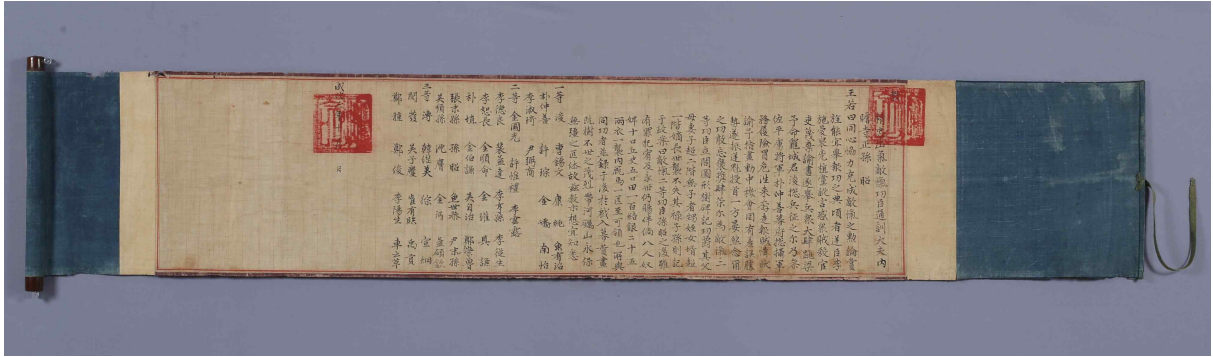


<금동사리의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청동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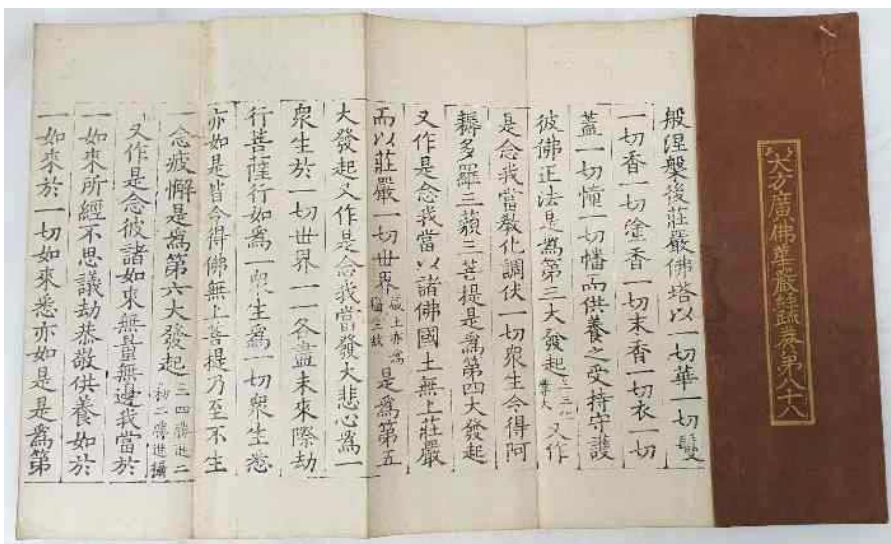
○ 보물 지정 예고



<손소 적개공신교서>



<사시찬요>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불조역대통재>

言道諸法自性皆緣虛音... 然由言說為依止故方乃可取可觀  
 可覺是故當知一切諸法甚深難見  
 如是所說差別建立有色无色法有  
 見无見法有對無對法有漏無漏法  
 有諍無諍法有滌无滌法依軌嗜依  
 出離法世間出世間法墮非墮法有  
 為无為法所知所識所緣法任持法  
 有異熟无異熟法有因無因法有果  
 无果法緣生法內法名色所攝法執  
 受非執受法大種所造非大種所造  
 法有非有法應修法有上無上法去  
 來今法欲界繫色界繫無色界繫法  
 善不善無記法學無學非學非无學  
 法見道所斷修道所斷非所斷法甚  
 深難見法若有善思所應思者應當  
 如理精勤方便思惟簡擇如是諸法  
 於此中餘決釋文更不復現

瑜伽師地論卷第六十六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宣哲言文  
 나는赤誠으로서祖國의獨立  
 外自由를回復하기為하야韓人  
 愛國團의一員이되야敵國의首  
 魁를屠戮하기로盟哲言하나다  
 大韓民國十三年十二月三日 宣哲言人  
 韓人愛國團 앞  
 李奉昌

<이봉창 의사 선서문>